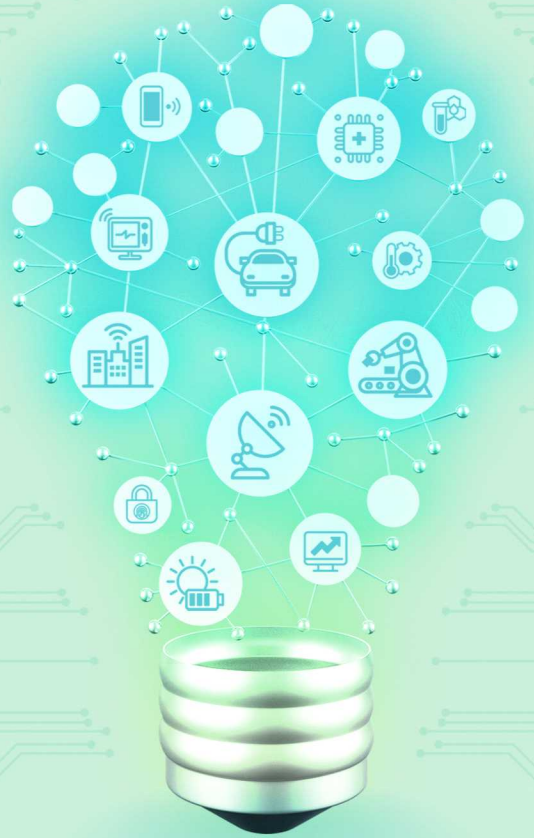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우진비앤지(주)(018620)

제약/생명과학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한국기업데이터

작성자

김진훈 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기업데이터(TEL.02-3215-26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비엔지(주)(018620)

제약기술과 미생물 기술에 기반을 둔 농업용 및 인체용 제품 연구개발

기업정보(2020/08/31 기준)

대표자	강석진, 강재구
설립일자	1985.12.27.
상장일자	2008.05.20.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C21230) 동물용의약품제조업
주요제품	동물용 미생물제제 인체용 원료의약품 친환경미생물제제

■ 43년 전통의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전문기업

축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1977년에 설립된 동사는 크게 동물용의약품 그리고 미생물을 활용한 약품과 비료 연구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물용 의약품 부문은 외국 회사의 제품을 국내 독점 판매하는 사업과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한 개량 신약품 개발사업 그리고 백신과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약품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사는 사업 초기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자 현재는 Elanco로 합병된, 스위스의 Norvartis사, 벨기에의 Janssen, 미국의 Intervet-Schering plough와 한국 내 독점 대리인 계약을 맺었으며 판매권과 기술력을 이전 받은 후 꾸준히 자체 기술을 개발하였다.

시세정보(2020/09/08 기준)

현재가(원)	3,50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967
발행주식수	27,055,715주
52주 최고가(원)	4,485
52주 최저가(원)	1,400
외국인지분율	1.14%
주요주주	강석진 강재구 외 4인

■ 동물용의약품과 미생물 기술의 인체로의 확대 적용

동사는 다년간의 동물용의약품 및 백신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미생물 발효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체용 원료의약품 생산 분야에도 진출하였으며, 2006년 8월 인체의료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염효소제인 SKD(Streptokinase-Streptodornase, 제품명 프로나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제조품목허가를 취득하였다.

■ 내수 시장 중심에서 수출기업으로 변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사는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2010년대부터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25~30%를 수출 매출이 차지하였다.

■ 주요 제품

동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페니실린 계열 주사제인 안티펜 SM과 오리지널 코팅 고순도 티아몰린 원료를 사용하는 슈퍼티아, 테나가드 시리즈 그리고 동물백신과 프로나제 등이 있다.

요약 투자지표 (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IFRS 별도)	264	-5.03	-34.1	-12.92	-42	-15.85	-18.55	-7.06	163.19	-273	1,441	-14.35	2.72
2018	306	15.9	-48.0	-15.67	-66	-21.66	-	-	126.49	-365	1,424	-5.10	1.31
2019	336	9.8	-16.0	-4.62	-136	-40.31	-47.55	-18.67	119.97	-530	1,050	-4.62	2.33

기업경쟁력

동물용 약제품 중심에서 사업영역 확대

- **동물용 (예방) 의약품**
 - 동사의 중심 사업 영역이며 다양한 의약품으로 확장 중
- **인체용 원료의약품**
 - 미생물 연구개발 경험을 성공적으로 인체용 제품으로 연결
- **동물사료 판매**
 - 동사의 연구개발 및 사업 역량을 접목한 시장 개척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17건의 특허 보유

- **사료첨가제와 약학조성물 특허**
 - 동물질병과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 **진단과 백신 관련 특허**
 - 가축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응용이 가능한 기술
- **미생물 관련 특허**
 - 농축산업용 제재와 인체용 원료의약품 제조 기술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 **동물용 의약품 기술**
 - 개량 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제품 : 팍셀, 프로젝트400, 세쿠스 등
 - 백신 : 예방 백신 연구개발 기술
제품 : PED-M(돼지유행성설사병 바이러스 백신)



- **미생물 발효 및 배양 기술**
 - 미생물 농약 원제 제조 기술
제품 : 토사랑, 금싸라기, 에코존, 에코파워 등
 - 토양 미생물제제(비료) 제조 기술
제품 : 만근이
 - 인체용 원료 의약품 개발 기술
제품 : 효소제 SKD



매출비중

■ 부문별 매출 비중

부문	제품군	비중	제품군	비중
제품	인체용의약품	3.95%	동물용의약품	24.95%
	동물용의약품 외	44.91%		
상품	인체용의약품	-	동물용의약품	4.28%
	동물용의약품 외	21.34%		
용역	임가공(CMO)	0.57%		
총 합계				100%

*출처: 동사 2019년도 연말보고서

동사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해외 판매처를 개척한 결과 수출이 꾸준히 늘어 2017년도에는 전체 매출액의 약 25%인 수출이 2019년도에는 약 29.5%로 증가하였음.

시장경쟁력

동물 의약품 국내 주요 기업 매출액

기업명	매출액(억 원)	기업명	매출액(억 원)
씨티씨바이오	1,219	대한뉴팜	719
진바이오텍	516	제일바이오	395
코미팜	345	중앙백신	296
대성미생물	253	우진비앤지	221

(출처: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017.)

세계 시장규모

전세계 동물용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8년 37조 원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약 5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이 중에서산업동물용 의약품의 비중은 64%이고 나머지는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으로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음. (출처 : 트랜스퍼어런시 마켓리서치)

동물 의약품 세계 주요 기업 2017년 매출액

기업명	매출액 (억 달러)	기업명	매출액 (억 달러)
조에티스 (화이자)	53.1	베링거인겔하임 동물건강	46.7
머크 동물건강	33.8	엘란코 동물건강	30.9

최근 변동사항

종속회사 변경과 사업 내용 변화

- **녹십자수의약품으로 우진바이오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이전**
 - 우진바이오가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으며, 백신부분을 우진비앤지가 회수하여 백신 연구개발은 우진비앤지에서 담당.

- **2019년 말 오에스피의 주식 양수**

- 우진비앤지가 오에스피의 주식48.89%를 양수하여 새로운 종속회사로 추가하면서 동물용 사료사업으로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음.

I. 기업현황

동물용의약품에서 출발, 인체용 (원료)의약품 개발

동물의약품 제조 및 판매로 사업을 시작,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해 자체적으로 동물백신을 개발하고 인체용 (원료)의약품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기술 중심 회사

■ 개요

동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77년도에 과학축산이라는 사명으로 창립되었고 1985년 12월 17일에 법인으로 변경되었다. 1996년 11월 1일 (주)우진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1년 3월 20일에 현재 사명인 우진비앤지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본점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있으며 홈페이지는 www.woogenebng.com이다. 코스닥 시장에는 2008년 5월 20일에 상장되었으며, 현재는 동물용 백신과 인체 원료의약품 그리고 미생물제제(동물용 & 농업용)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 관계회사 현황

동사는 반려동물 유기농 사료 OEM 전문회사인 (주)오에스피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주)오에스피는 종이포장지 제조 및 인쇄회사로 출발(2004년)하였으나 2011년 유기농 사료 사업부를 신설하였다. 이후 미국 농무부 유기농인증(NOP; Nationla Organic Program)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인증 및 친환경(유기농 70%, 유기농 95%)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주요 거래처로는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주)사조동아원, (주)우성양행, (주)선진팻 그리고 제일사료주식회사 등이 있고 현재 OEM 제품 8종과 자사제품 1종을 생산 중이다.

현재 동사는 (주)오에스피의 지분 48.89%를 보유(2019.12. 기준)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최종적으로 2022년 09월 30일 기준으로 (주)오에스피의 주식 8만 주 중 65,779주를 약 185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020.07.09. 정정신고)

■ 주주 관련 사항

동사의 주요주주는 대표이사인 강재구와 특별관계인 5인으로 이들이 보유한 총 주식 수는 6,371,694주이며 총 발행 주식의 24.54%를 차지한다. 최대주주인 강재구(2010.01. 강석진에서 변경)가 15.34%인 3,984,572주를 보유하고 있고 특별관계인인 강석진이 2,037,479주(7.85%), 강은영이 266,805주(1.03%)를 보유하고 있다. (2020.05.26. 주식 보유상황 공시)

■ 경영주 관련 사항

대표이사 강재구는 건국대학교에서 축산가공학을 전공하였으며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동사의 해외영업이사로 근무하였고 2014년 3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018년 11월에는 (주)우진바이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9년 10월 (주)오에스피 인수와 함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 사업부문

동사의 사업은 크게 제약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및 백신 사업과 미생물 기술에 기반을 둔 약품(농약과 비료 그리고 인체용 원료의약품)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인수한 오에스피를 통한 반려동물 사료 판매 및 유통 사업은 2020년도에 진입한 관계로 제외함)

1. 동물용 의약품 및 백신 사업

동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안센과 노바티스 등 글로벌 원료약품 공급사로부터 오리지널 원료 약품을 공급받아 생산하는 제품과 독자적 제제연구로 개발한 개량 신약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량신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유용성에 있어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됐거나 의약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이다.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신약에 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가 좁고 독성시험과 일반 약리시험, 임상시험자료도 일부 면제가 가능하므로 신약에 비해 개발비 부담이 적고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림1. 동물용의약품 사업 내용



*출처: 우진비앤지

한편 동사는 장기간 독점 지위 유지가 가능한 동물백신사업에 2012년에 진출하였으며 2017년 4월 백신공장 완공하고 같은 해 12월 PED-M 백신을 출시하였다. 동 백신은 돼지유행성설사병 (Porcine Epidemic Diarrhea)을 예방할 수 있는 사독백신이며 2019년 10월 25일자로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등록허가를 얻었고, 이로 인해 동유럽과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독립국가연합) 그리고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 제품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돈 호흡기 질병 전문 치료제인 플로판 4에스와 프로젝트 400 주사제가 그 효능과 기술을 인정받아 2019년 베트남에서 4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사는 2021년까지 4종의 백신을 출시하고자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돼지열병바이러스 백신(CSF-C, CSF-M)과 돼지 PCV2 바이러스 백신 (Circo-1), 돼지 PRRS 바이러스 백신, 닭 살모넬라 백신을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인간에 사용할 수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백신 개발을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비를 받아 진행 (2016~2020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 미생물 기술 기반 약품 사업

동사는 동물 의약품 시장이 항생제 오남용 등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80년대부터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미생물 배양과 발효 기반의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왔다.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확보한 균주를 국제특허균주로 등록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대체의약품과 면역증강제 그리고 조류독감과 구제역 차단을 위한 방역약품(소독제)도 생산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자체 개발한 미생물 농약의 원제 제조업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농업용 토양개량제(제품명 토사랑), 병해충방제제(제품명 삼육오) 및 작물 생육촉진제도 생산하고 있다.

동사가 보유한 미생물을 사용처 별로 살펴보면 동물용 미생물 제제는 PTB와 포자미생물, 김치유산균 외 40여 건이고, 농업용 미생물은 B.Sutilits GA2005 외 2건이며, 인체용 미생물은 S.dysgalactiae 외 5건이 있다.

그림2. 동사 보유 미생물 관련 제품



*출처: 우진비앤지

이러한 미생물 연구개발 경험을 토대로 동사는 미생물 발효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체용 원료의약품 생산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하여 2006년 8월 인체의료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염효소제인 SKD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제조품목허가를 취득하였다. 본 제품은 기존제품보다 수율이 28.5% 향상되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판매하고 있다.

인체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염효소제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SKD; Streptokinase-Streptodornase)는, 연쇄상구균(Streptococcus)의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섬유소 용해인자인 Streptokinase(SK)와 핵단백 용해인자인 Streptodornase(SD)가 배합된 효소제이다. SKD는 생체 섬유소 용해기능을 활성화하고 점조물질(농, 객담) 용해작용이 우수하며 살아있는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 수술 및 외상 후의 종창 완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객담 및 마취 후 객담 배출을 도와주며 부비강염 및 혈전성 정맥염에도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한편 동사는 정장제 일반의약품 원료의 일종인 락토바실루스람노수스균의 동결건조배양물(원료) (기존명: 락토바실루스 변종 람노수스)도 개발하여 제조판매허가를 받은 바 있다.

■ 주요 기술 역량

동사는 중앙연구소(경기도 화성소재)와 백신연구소(충남 예산소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연구소는 동물용 의약품의 주사제를 개발하는 제제팀과 사료첨가제를 연구하는 분석팀, 미생물 발효를 담당하는 배양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백신연구소는 기초연구와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과 제형화 제품화를 담당하는 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이 연구소들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인체원료의약품 등 발효공학 분야에서 수년간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동물용 백신과 반려동물 분야 외 인체백신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연구 및 생산 시설은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인증과 원료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BGMP; Bulk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받았으며, 2017년 준공한 백신연구소는 그 해 10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품질관리우수업체(KV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Veterinary Pharmaceutical in Korea)를 받은 후 EUGMP(European Uni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와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에 통과하여 의약품위탁생산자(CMO; Contract manufacturing Practice)로서의 역할도 수행이 가능하다.

이는 동사가 생산 공정과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2019년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자율점검 및 수출우수업체 제조부분에서 검역본부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사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아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임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3. 동사 보유 설비



*출처: 우진비엔지

동사의 핵심 연구인력은 중앙연구소장인 이성호 박사, 백신연구소장인 김정한 박사와 연구팀 프로젝트 매니저 권우주 박사이다. 중앙연구소장인 이성호 박사는 건국대학교에서 형질전환을 전공한 Ph.D로, SCI급 논문 23편 등 관련 연구를 계속해서 해왔으며 중앙연구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백신연구소장인 김정한 박사는 호서대학교에서 면역학을 전공한 Ph.D로 10편의 국제학술지 논문 등을 등재 하였고 5건의 특허등록을 하였으며 인하대 의과연구소 및 바이넥스에서 인체 면역 단백질 특성분석과 정제공정 및 분석법 개발에 대한 연구 경력이 있다. 권우주 박사는 부경대학교에서 돛돔이리도바이러스 백신을 최초로 개발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바이러스와 관련한 7편의 국제학술지 논문을 등재하였고, 2건의 특허를 등록하였다.

동사의 전체 구성원 중 20% 이상이 연구인력으로 박사 5명, 석사 9명을 포함하며 연구인력의 평균 개발 경력은 6년 이상이다. 동사는 이러한 인적/물적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추진 중에 있다.

■ 주요 제품

동사는 오리지널 원료약품과 독자 개량 신약품 및 인체원료 의약품인 SKD 그리고 미생물체제 등 다종의 제품을 연구개발 및 판매하고 있으며 동사가 제조하는 동물약품은 SKD, 플로판-에스, 프로젝트-400, 안티펜-SM, 슈퍼티아 그리고 PED-M이 있으며 수입하는 동물약품은 알코프로와 푸소가드 그리고 PED-M이 있다.

그림4. 동사의 주요 제품

동물약품	인체원료 의약품	바이오
<p>오리지널 원료약품 국내 독점 판매권</p> <p><엔라신-10> <슈퍼티아> <크리나룩스></p> <p>독자적인 개량 신약품</p> <p><팍셀> <프로젝트 400> <세쿠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대비 고품질 제품 개발 독자적 제제 연구로 특허 취득 <p>방역약품</p> <p><크린입프> <웰크린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류독감 구제역 ASF 소독제 	<p><식약처 허가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D (Streptokinase / Streptodornase) 우수 균종 보유로 대량 생산 가능 기존 대비 285% 향상된 수율 확보 현재 유일한 원료약품으로 독과점적 시장 (국내 200억 시장의 니치마켓) 국내 유일 마로부터 원료약품 승인 수출 지속 확대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정장제 	<p>동물용 미생물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합성세균(P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수처리 등 환경 정화제 -동결건조 분말제형 (세계최초) 프로비온 스포아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자형태로 대량 배양 가능 조류독감예방제 미아락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한 설사억제 & 탈수방지 효과 <p>농업용 미생물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특허 등록 Streptomyces sp에 의한 고추역병균 생육억제 (04.01) 탄저균 억제균 (07.09) <p><토사릴> <삼육우></p> <p>→ 국내 최대 배양 능력 확보 (1만톤/연)</p>

*출처: 우진비앤지

■ 매출 비중

동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 동물용의약품 및 그 외 제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체용 의약품은 소염효소제인 SKD가 3.95%를 차지하고 있다. 상품은 동물용의약품과 외품으로 구성되며 전체 매출에 25%를 차지하고 있다. 용역매출은 임가공(CMO)에 대한 매출을 의미한다. 2017년 이후 매출형태별로 살펴보면 동물약품 외가 46%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인체 원료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제품이 전체의 26~33%를 차지하고 기타 상품매출 외가 26~33%를 차지하고 있다.

Ⅱ. 시장 동향

축산동물과 반려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해 성장하는 동물용의약품 시장

전 세계적인 육류 소비 증가와 반려문화 확산 및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GMP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CMO 생산 방식도 주목 받고 있음.

■ 동물용 의약품 및 백신 시장

동물용 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및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으로 약사법에 의해 정의되어 있다.

동물용 의약품 시장은 거대 다국적 기업에 의존도가 높아 국내 동물 의약품업체의 제품 경쟁력은 다국적기업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육류 소비 확대에 따른 축산업의 성장과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의한 반려동물 개체 수 증가 등에 힘입어 꾸준히 규모가 커지고 있다.

동물약품 시장은 소비재 시장이 아닌 생산재 시장으로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이나 특정한 사회적 이슈가 시장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한다. 동물약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질병이나 계절적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축산물의 수출입 및 원료의 수급조절로 수익성이나 시장의 규모면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산업은 GMP 의무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동물용 약제품의 원가 경쟁력과 품질 우수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수익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CMO(의약품 생산 대행 전문기업) 생산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물용 의약품 시장은 항생제, 백신 등 가축에 쓰이는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직도 전체 시장의 80% 가까이를 가축용 의약품이 차지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은 신약 개발이 많은 편은 아니나, 기존 원료의약품을 동물에 적용한 신규 제품에 대한 개발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동물용 약제품 출하금액은 2014년 4,410억 원에서 2018년 5,578억 원으로 연평균 6.05% 증가하였으며, 시장 환경, 업황 등을 감안 시 이후 연평균 0.68% 증가하여, 2023년에는 5,772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한국신용정보원 TDB, 동물용 약제품 시장보고서, 2020-04-28)

과거부터 질병 예방의 수단으로 항생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축산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항생제 사용이 제한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백신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동물백신은 국내 시장이 2016년에 2,220억 원, 해외 수출이 22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해외 시장도 2015년 현재 62.7억 달러에서 2024년까지 114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동물백신 시장은 단순한 치료제 시장과는 다르게 높은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이 필요한 시장으로 베링거인겔하임, 조에티스, MSD 등 다국적 기업이 전체 시장의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 미생물 기반 약품 시장 (동사 제품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건강,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축산물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각 국가별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에 따른 수입개방의 위협으로부터 국내 농축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막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생물 발효공학으로 생산되는 친환경토양개량제 또는 [작물 병충해관리용 농자재]로 지칭되는 미생물비료, 미생물농약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농업용 미생물은 농업적으로 유용한 농약 및 비료 등으로 사용하거나, 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 또는 미생물제제를 의미하며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포함한다. 농업용 미생물은 토양개량과 작물보호 효과를 유도하는데, 작물보호는 병해충방제, 물질분해합성, 양분흡수촉진, 작물생육촉진, 제초 효과 등을 포함한다.

국내 농업용 미생물 시장은 우수한 신규미생물 발굴능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장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품질관리 및 인증에 대한 정부의 제도마련, 현장에서의 인지도 개선, 실용화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 등이 요구된다.

국내 농업용 미생물 시장은 2012년 956억 원 규모이며, 연평균 21.74%의 성장률로 2016년에 2,100억 원 수준에 달하였고, 이후 동일한 연평균 성장률을 가정할 때, 2021년에는 5,616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으며, 세계 농업용 미생물 시장은 2012년 13억 7천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19.0%씩 성장하여 2016년에 27억 4천만 달러 규모이고, 이후 연평균 13.9%의 성장률을 가정할 때 2021년 52억 6천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TDB, 농업용 미생물 시장보고서 (2018-05-29))

한편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원료의약품이란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 방법들의 조합에 의하여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의약 중간체/원제 제조사들은 중국 및 인도 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의 제네릭의약품 원료 생산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특허만료 시기가 가까운 제품의 원료 및 제제/제법의 생산기술 확보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 중간체/원제 산업의 특징은 ①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②완제의약품 수요의 영향을 받는 산업 ③장기계약에 의한 생산 ④계약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 ⑤완제의약품의 경쟁력을 좌우 ⑥선진국 수준의 GMP 인증 시설 요구 등으로 요약된다.

Markets and Market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약 중간체/원제 시장은 2017년 2조 6,801억 원에서 연평균 10.6%로 성장하여 2019년 3조 2,755억 원 규모이며, 2020년 이후 연평균 6.9%로 성장하여 2024년에는 4조 5,693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세계 의약 중간체/원제 시장은 2017년 1,59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7.0% 성장하여 2019년 1,822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2020년 이후 연평균 6.1%로 성장하여 2024년에는 2,452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바 있다.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TDB, 의약 중간체/원제 기술 및 시장보고서, 2020-04-24)

Ⅲ. 기술분석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고품질의 동물용 의약품 생산 공급

동사는 창업이후 꾸준한 기술도입과 자체기술력 제고를 통해 동물백신을 개발하였으며 인체용 원료의약품까지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기술 중심 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

■ 역유전자 조작기술

동사는 2013년부터 동물백신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수의과대학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시작했으며 크게 3가지 신기술을 이용한 신개념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역유전자 기술(Reverse genetics technology)을 이용한 백신 개발, 바이러스질병 및 세균성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생산을 위한 백신주 개발을 위해 종전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실험실의 특정 조건하에 여러 번 계대 배양을 통해 병원성이 약해진 백신주를 만들어 사용해 왔다.

이러한 기술은 오랜 기간과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역유전자 기술은 이미 알고 있는 유전자의 기능에 따라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결손 또는 추가하여 기존 병원성 바이러스나 세균의 병원성을 없애거나 대사 작용을 변형시켜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그리고 예측 가능한 백신주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동사는 역유전자 기술을 이용하여 닭 뉴캐슬병 예방 백신은 물론 뉴캐슬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인플루엔자, 전염성 기관염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백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면역분자 발현 동물 세포주 개발

최근 면역 기능성 분자를 이용한 백신의 효능 향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면역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면역호르몬(Cytokines)등을 이용한 백신 adjuvant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첨가 수준의 기술에 머무르고 있다. 동사는 특별한 발현 시스템을 이용하여 면역 기능성 단백질을 동물세포 표면에 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동물세포를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배양할 경우 바이러스 표면에 면역기능성 분자가 부착된(Anchoring) 바이러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역기능성 분자 발현 바이러스를 이용한 생백신이나 사백신을 제조할 경우 세포성 면역이나 점막면역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박테리아 표면발현기술

박테리아 표면발현 기술은 1980년대부터 새로운 기능성 박테리아 개발에 이용되고 있고 최근 이러한 기술이 백신주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박테리아 표면에 발현되는 단백질 모티프(Motif)에 외래 항원 단백질을 퓨전(fusion) 형태의 단백질로 발현시켜 외래 항원에 대한 백신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당사는 이러한 기술 외에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외부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고 단백질 분자를 미생물 표면에 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백신주 개발은 물론 유용 미생물의 기능 향상에 이용하고 있다.

■ 바이오리액터 시스템을 이용한 미생물의 대사물질 대량 생산

동사는 세균, 효모 등 미생물을 이용하여 의약품 원료 및 유용성분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미생물의 생화학 반응을 이용한 물질 생산은 화학반응과는 달리 고온, 고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효소와 생체기능을 이용하여 복잡한 물질을 만들면서도 불필요한 물질을 생성하지 않는다. 위 기술을 이용하여 미생물에서 원료의약품 SKD, Pronase 등 다양한 제품들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형질전환 균주를 이용하여 세균에서 발현하지 않는 인체 유래 단백질들을 생산하는 균주를 개발하여 보유 중에 있다. 형질전환 단백질은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동사는 EGF, ALA 등 고부가가치 기능성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 연구개발 중에 있다.

■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항생제 대체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2011년 7월 배합사료 내 항생제첨가가 금지됨에 따라 항생제 대체 물질들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항생제 대체 물질로 프로바이오틱스가 대두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에서 유용한 기능을 하는 살아 있는 균으로서 가축이나 사람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위산, 담즙산 등 가혹한 조건을 가진 소화관 내에서 살아남아 장 까지 도달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동사는 가혹한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포균인 *Bacillus subtilis*, *Bacillus coagulans*, *Clostridium butyricum* 등을 이용한 생균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아포균을 이용한 생균제는 냉장보관을 하지 않더라도 생균수가 감소하지 않으며 강력한 보호막인 아포를 형성하여 위산, 담즙산 등 생체 내 가혹한 환경에도 살아남아 장내 환경 개선을 이루어내며, Bacteriocin 과 같은 2차대사산물을 생성하고 장내 유해균을 저해하여 섭취한 가축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로 인해 증체율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질병 저항성이 높아짐으로서 항생제를 대체 할 수 있는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하여 판매 중에 있다.

■ 축사 환경 개선 및 가축 분뇨 부숙 촉진 기술

국내 축산업 특히 양돈, 양계 농가는 공장식 밀집사육으로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공장식 사육의 문제점이었던 질병과 방역뿐만 아니라 축사 내 악취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었다. 축사 악취는 미부숙된 가축분뇨의 배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며 미부숙 가축 분뇨의 배출을 제한하고자 2020년 3월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동사는 악취를 제거하고 퇴비 부숙을 촉진하는 다양한 균주를 분리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분뇨의 퇴비화를 촉진하는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 유산균 고농도 대량배양기술개발

인체 원료 의약품 및 반려동물용 정장제, 동물용 사료첨가제에 사용되는 프로바이오틱스로 유산균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이 고농도로 첨가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동사는 다양한 유용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균주를 최상의 상태로 확보할 수 있는 균주별 최적화된 배양 protocol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균주의 장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동결 보존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안정성이 뛰어난 유산균 원말 생산 기술도 확보하였다.

■ 배수계 해충 및 모기유충 살충능력을 가진 미생물 대량배양기술

동사는 모기 방제용 생물적 방제제인 ‘Bacillus thuringiensis subsp. Israelensis(이하 Bti)균주의 대량배양 공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Bti 균주가 생성하는 내독소단백질(Endotoxin)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기술이다. 관련하여 동사는 모기유충을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방제하기 위해 Bti 균주를 이용한 배수계 해충에 대한 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또한 동사는 친환경 나방유충 방제제인 ‘Bacillus thuringiensis aizawai(이하 BTA)’ 균주도 보유하고 있다.

■ 인체용 단백질 의약품 대량 정제 기술

1~2주 정도의 미생물 대량 배양 후 배양액에는 세포 찌꺼기, 여분의 배지, 세포 유래 바이러스 등 다양한 성분이 혼합되어 있다. 이 배양 혼합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원료 단백질을 의약품을 순수 분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초기 정제 후 분리한 원료 단백질을 필요한 농도로 농축하고, 제조 공정 중 유입될 수 있는 균을 여과 및 제거해서 최종 원료 의약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원심 분리, 미세여과, 한외 여과, 나노 여과, 이온 치환 크로마토그래피 등 다양한 정제 기법이 사용된다. 동사는 20여 년간 단백질 의약품 순수분리 및 생산 기술 연구에 투자를 지속하여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높은 효율로 관련 제품을 생산해 왔다.

■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DDS) 기술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능 및 효과를 극대화시켜 필요한 양의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약물전달시스템(DDS)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로서 약물투여를 효율화함으로써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준다. 약물전달시스템은 의약품의 단순한 배합에서부터 고도의 기능성을 갖는 제형까지 통칭하는 것으로 경구, 주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적용되고 있다.

당사는 DDS 관련 기술인 지속성 약물 방출시스템, 표적 지향적 약물전달 시스템, 약물 전달용 나노입자, 난용성 약물의 나노 입자화를 통한 가용화 기술, 난용성 약물의 용해도를 높여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고체분산체 기술, 친수, 친유그룹을 갖는 블록 코폴리머 등을 이용한 마이셀 형성 등을 이용하여 주사제, 액제 등을 개발하였다.

■ 항생제 용해성을 증가시킨 대사촉진제

최근 항생제는 수성 현탁액제로 사용 할 경우 보존기간이 짧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분말의 형태로 보관되고, 사용시점에 물에 용해 시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장 필드에서 항생제 사용시 단독 투여 보다는 대사촉진제와 같이 혼합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사촉진제의 경우 항생제를 각테일 하여 사용 시 용해도가 떨어져 불편함이 발생하고, 용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주사 시 주사기능 저하, 체내 흡수율 저하, 궤양, 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사는 현장에서 대사촉진제와 항생제를 각테일 하여 사용함에 있어, 용해도와 Cyanocobalamin의 안정성을 개선시킨 대사촉진제를 개발하였고, 효율적인 항생제 사용을 위한 대사촉진제의 조성을 특허로 가지고 있다. (특허번호: 10-2058133)

IV. 재무분석

2017년 이후 2019년도까지 재무 상태는 안정화

동사는 2017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매출액의 증가, 자본 증가, 자기자본 비율 증가 및 유동비율 증가 등 여러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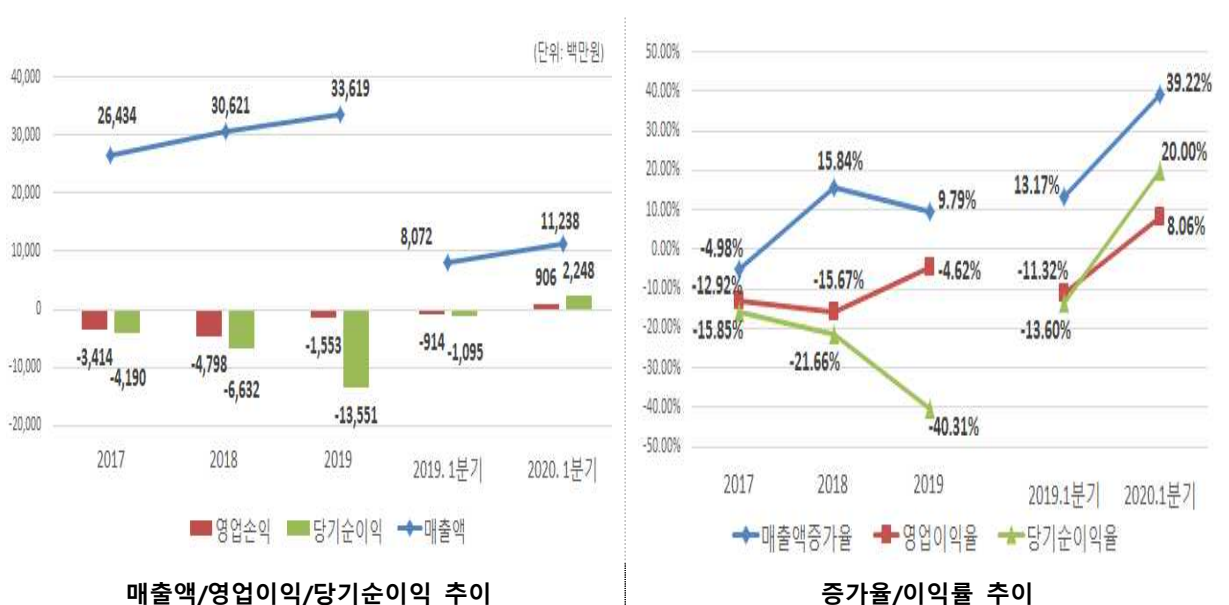
■ 영업부분 수치는 부정적이나 재무지표는 개선

2017년 이후 꾸준한 매출액 증가가 있었고 영업상황도 개선되고 있으나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채 증가는 유동부채가 2017년 이후 45억 원 정도 감소한 반면에 비유동부채가 약 128억 원에서 약 26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 원인인데, 대부분의 원인이 2019년도에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환사채를 85억 원 정도 발행한 것과 비유동과생상품부채 40억 원이 주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50% 초반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자기자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사의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의 연결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동자산 중 현금및현금성자산 규모가 2017년도 약 13.4억 원에서 2019년도 약 56.6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재고자산은 약 50% 증가하였으며, 특히 무형자산이 약 9.5억 원에서 약 194.7억 원으로 20배 넘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유동비율이 10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일반적인 표준비율 50%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은 하나 자기자본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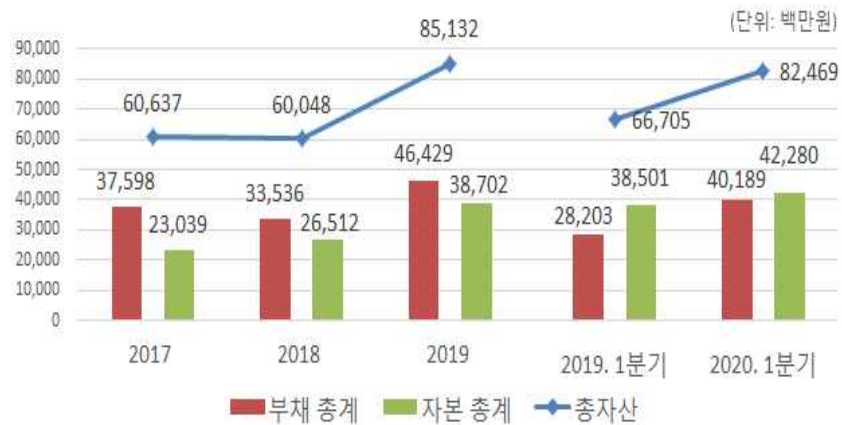
동사가 2019년도에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으로 인해 투자활동에서 약 125억 원의 현금이 유출되었고, 우선주 발행과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재무활동에서 현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자회사의 활동과 관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5. 동사 연간 및 2020년 1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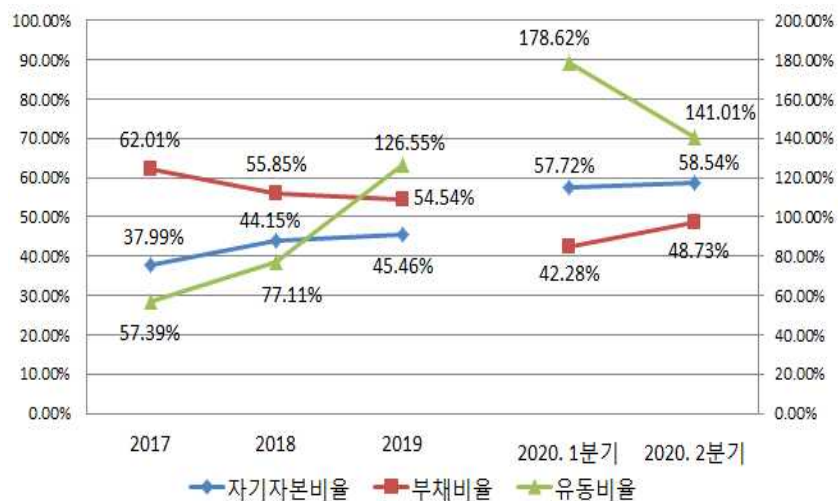
*출처: 동사 2019년 사업보고서, 2020년 1분기 보고서

그림6. 동사 연간 및 2020년 1분기 부채총계/자본총계/총자산 추이



*출처: 동사 2019년 사업보고서, 2020년 1분기 보고서

그림7. 동사 연간 및 2020년 1분기 부채총계/자본총계/총자산 증가율 추이



*출처: 동사 2019년 사업보고서, 2020년 1분기 보고서

그림8.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2019년 사업보고서, 2020년 1분기 보고서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사업 영역 확장과 세계시장으로 진출 확대

동사는 종속회사 변경을 통한 백신 사업 강화와 신사업 진출, 지속적인 인체용의약품 연구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국제 사업망 확보로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중.

■ 종속회사 변동과 백신연구소 회수

동사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주)우진바이오(2018년 11월 백신전문기업으로 분할)와 (주)오에스피(2019년 10월 (주)우진비앤지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 8만 주, 225억 원)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었으나, 녹십자수의약품이 (주)우진바이오의 경영권을 인계받고 주식의 58.37%를 보유(2020.07.30. 기준)하게 됨에 따라 (주)우진바이오는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다.

■ 동물용 사료 판매 사업 시작

동사는 (주)오에스피가 생산한 nature signature라는 유기농 반려동물 사료를 2020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매출은 미미하지만 (주)오에스피를 인수하면서 기획한 반려동물사료시장 진출을 위한 첫발을 디딘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9. 판매 중인 동물용 사료



*출처: 우진비앤지

■ 인체용 의약품 시장 진출

동사는 동물용의약품에서 시작하였으나 미생물이나 백신 관련 기술은 인체용 의약품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이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예방 백신 연구가 성공한다면 인체용 원료의약품인 SKD 제품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인체용 의약품 시장에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매출, 꾸준한 증가 추세 그리고 수입판매 비중의 증가

동사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하여 2010년 내수가 전체의 87%로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내수가 전체에서 65.97%로 확 낮아졌다. 최근 몇 년 동안 내수비중이 70~75%대로 다시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꾸준히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글로벌 사업망 확장을 위해 공동마케팅과 기술이전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동물용 의약품 수출확대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받아 2020년 1월 동물약품협회가 주최한 2020년 신년교례회 및 수출 3억 불 달성 기념행사에서, 수출 유공업체 및 수출 유공자 표창(농림식품부장관)을 수상하였다.

그림10. 글로벌 사업망 확장

◆공동마케팅 / 기술이전			◆해외 유통망		
기업명	기업내용	협력 내용	기업명	지역	기업내용
 글로비온	- 인도 전문 동물백신 기업 - 세구나 그룹 자회사 (연매출 1조원)	- 양계백신 제조 기술이전 계약 체결 ('16.11) - 국내 동물약품회사 최초	 CP그룹	베트남 (동남아)	- 동남아 최대 축산유통기업 - 육계 공급 글로벌 1위 - 돈육 공급 글로벌 2위
 휴베파마	- 벨기에 최대 동물약품 회사 - 세계 13위 동물약품 기업 - 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에 동물약품 판매	- 양돈/양계백신 생산공정 기술이전 계약 체결 ('17.05) - 돼지 홍막페렴 예방 백신 기술이전 계약 체결 ('18.10)	 킹후	중국	- 동물약품 첨가제 판매기업 - 북경, 상해, 산둥 등 중국 26개 지역에 대리점 운영
 세픽 프랑스	- 에어리퀴드 그룹 자회사 - 백신 보조제 및 주사제 사업	- Adjuvant 제조 기술 관련 공 동개발을 통해 Adjuvant 적 용 백신 개발	 베프름	러시아	- 항생주사제, 호르몬제, 생균제 판매기업

*출처: 동사 2019년 사업보고서

한편 수출비중의 증가와 더불어 내수에서 수입품의 비중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도 내수에서 3.78%, 전체 매출액에서 3.32%에 불과하던 수입상품 비중이 2013년도에 갑자기 증가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어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표1. 동사의 매출에서 내수와 수입 비중

구분(% ,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내수 중 수입 비중	14.28	21.14	34.39	34.68	25.60	36.29
총매출액 중 수입 비중	9.42	13.44	24.62	26.34	19.16	25.61

*출처: 동사 2019년 사업보고서 - 한국기업데이터 재가공

■ 당기 순이익의 급격한 감소와 배당미실시

동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던 주식배당을 제33기에 총268백만 원을 사용한 이후로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제31기와 32기에는 주당순이익이 34원과 31원이었으나 제33기인 2017년도에 주당 손실이 364원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그 이후로 주당 순이익이 -418원(2018년), -520(2019년)원으로 계속 나빠지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33기 대비 당기순 손실이 3배 이상 (약 -42억 원에서 약 -148억 원으로) 늘

어난 것이 원인이며, 이는 종속회사인 우진바이오의 적자지속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해당 없음	.	원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네이버 증권(2020.08.28.)

최근 1년 동안 주가흐름을 보면, 2019년 3분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이슈로 급작스러운 상승이 있었고 2020년 3분기에도 돼지 열병 이슈로 가파른 상승을 보이며 작년 동기의 주가를 회복하였다. 2020년 3월 발생한 주가 급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것으로 국내 증시 전반의 상황이었으며, 동사의 사업 현황 등이 문제를 더 크게 야기한 측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